

## 가난과 고된 노동 선택한 귀농인 이야기

《희망의 발을 일구는 사람들》 펴낸 안철환씨



어느 시인의 말처럼 가난은 한낱 남루함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물질과 속도, 그리고 경쟁의 시대를 견뎌야 하는 현대인에게 이 말은 언어의 사치처럼 들릴 것이다. 모든 것이 수치와 물량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가난과 불편함은 외면해야 할 몫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루함과 고된 노동을 찾아 떠나는 사람도 있다.

출판기획자 안철환씨(37)가 펴낸 《희망의 발을 일구는 사람들》(마가음)은 바로 '사서 고생'을 선택한 귀농인들의 이야기다.

"10여년 전부터 도시인들이 조금씩 농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일종의 사회현상이 될 정도로 본격화됐지요. 도시 인구집중률이 86%에 이르는 기형적 인구분포와 먹거리 부족 때문에 귀농은 필연적입니다. 생태주의적 가치관의 확산도 한몫을 했지요. 무엇보다 도회적 삶의 비인간성이 귀농을 부채질한 근본적 요인일 겁니다."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비인간적 경쟁주의의 삶을 벗어나 농촌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강원도 인제에서 '하늘밭 화실'을 꾸며 '화농일치'의 삶을 실천하는 최용건 화백, 농약 대신 백초액을 사용해 흑향미를 개발한 벼박사 강대인씨 등의 이야기를 취재해 재구성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급자족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도회인보다 더 풍요롭죠. 이들을 만나면서 새삼 가난의 중요성을 깨우쳤습니다."

안철환씨도 안산에서 약 100평의 밭에 콩·감자·옥수수 등 20여종을 심어 일군다. 틈날 때마다 밭에 나가 작물을 돌본다. 소나무 기 획실장으로 귀농관련서를 기획하면서 귀농과 인연을 맺어 지금은 귀농운동본부에서 출판기획일을 맡고 있다. 귀농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도시적 욕망과 전원생활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은 채 귀농하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농사 지어 돈을 번다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렵죠.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농사는 생산자의 가격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난과 불편함, 그리고 고된 노동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안철환씨는 20세기의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농업뿐이라고 확신한다. 공동체적인 삶의 회복, 자급자족 능력의 실현, 친환경적 삶의 추구 등의 가치는 농촌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아직 비판적이다.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으로 도농연대 운동을 펼치는 김정택 목사 같은 경우가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생태계의 순환메커니즘을 위해 농촌과 도시의 유기적 연대가 중요해요."

앞으로 도착화된 유기농법 관련서 약 40여권을 기획해 순차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20년 동안 유기농을 일궈온 한 농부의 삶을 밀착 취재한 원고도 마친 상태다. 이런 출판활동을 통해 생태주의적 가치관과 귀농운동의 핵심을 더 넓고 깊이 파고들겠다는 다짐이다. —박천홍 기자

## 인도 안에서 인도 바라보기

《베란다가 있는 풍경》 펴낸 이옥순씨



인도라면 춤추는 코브라와 다리를 꼬고 앉은 요가수행자, 히말라야와 코끼리를 떠올리기 쉽다. 그래서 인도여행기를 펼친다는 것은 종교와 정신의 나라를 만난다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숨겨진 욕망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양의 동쪽 인도는 우리에게 가깝다. 인도가 신비하다면 우리도 서구인에게 신비로울 것. 그렇다면 인도를 신비하게만 바라보려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인도도 사람 사는 곳이니 여행기라 해도 결국엔 사람 사는 얘기로 귀착되죠. 그럼에도 인도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영국인이 만들어놓은 이미지를 통해 인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서양의 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자이기도 한 셈이죠."

델리대학교에서 인도근대사를 전공한 이옥순씨의 문화기행 《베란다가 있는 풍경》(책세상)은 여느 인도기행서와 많이 다르다. 바깥에서 인도를 본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인도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물론 느닷없이 기차가 아홉시간 동안 멈춰버려도 아무 불평없이 참고 기다리는 인도인의 모습도 나오지만, 자신들을 '돼지'라고 부르던 영국인에 맞서 일어난

세포이의 반란도 함께 소개된다. 다름을 인정하되 그들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전언처럼 들린다.

"작년 핵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존심이 센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코카콜라가 맥을 못추고 맥도날드가 개업한지 몇 달만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나라죠.

하지만 대개 유희를 믿기 때문에 그악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죠."

이 책은 현대 인도의 모습 속에 나타난 인도인의 자의식과 변화하는 모습 등을 기행문의 형식 안에 담아 7년 이상을 인도에 머문 사람의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아홉 개의 대표적인 도시에 얽힌 인도근대사의 풍광을 소개해 전공자의 눈으로 생생한 인도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래서 다른 여행기와 달리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인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미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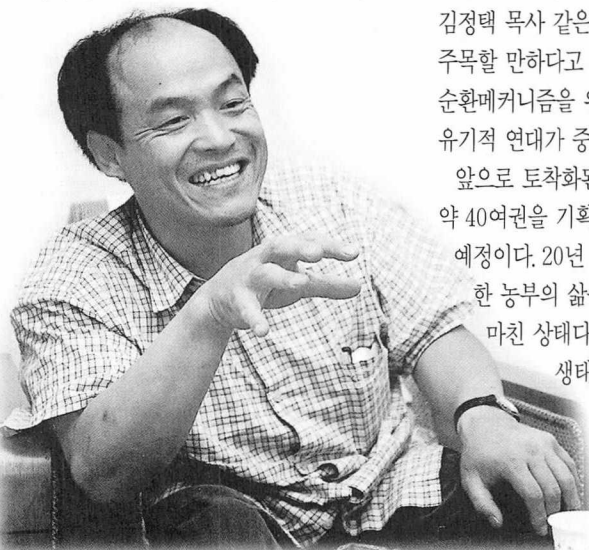
"아직도 제게 요가하고 명상하는 얘기 써달라고 청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사람 중 《우파니샤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정도일 것입니다. 인도인의 종교는 그들의 생활 속에 배어 있죠. 우리 생각과 달리 늘 새로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인도를 가는 것이죠"

이 책은 1997년 여름방학부터 올 겨울방학까지 다시 인도를 돌아보고 난 뒤 썼다. 그간 이옥순씨는 《인도근대사》,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인도여자에게 마침표는 없다》, 《여성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 등의 책을 펴냈다.

아직 좀더 인도의 참모습을 대중적인 문제로 소개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지만, 전공인 인도근대사의 본 모습을 담은 학술서를 낼 생각도 있다.

어쨌든 이옥순씨는 조만간 다시 인도에 가 있을 것이다. "오래된 애인처럼 정이 들었기 때문"에.

—김연수 기자



## 인류의 기억 쌓인 유럽문명의 자산

〈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눈부셨다〉 펴낸 권삼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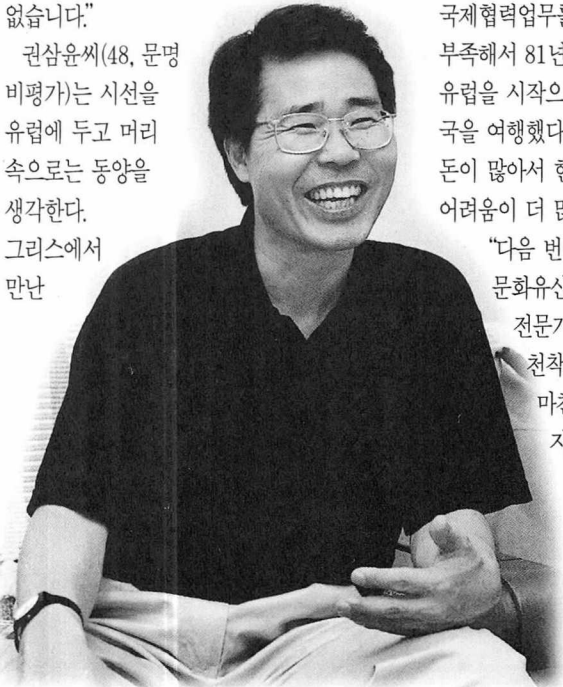
유형이든 무형이든 문화유산에는 생활의 소소한 감정과 보편적 이상을 추구했던 인간정신의 정수까지, 인류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다. 유네스코가 협약 가입국의 자연 및 문화유산 가운데 현저하게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을 뽑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유산들은 그런 점에서 진짜 보물이다.

“특히 유럽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400개 문화유산 가운데 65% 정도인 236개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가시적 유물이 아니라 정신사적 가치가 응축돼 있는 자산 중의 자산입니다.”

그 많은 유럽의 문화유산 가운데 문화와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한 30가지를 책으로 엮은 〈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눈부셨다〉(호형출판)는 유형의 것을 통해 무형의 것을 찾으려 한 정신의 궤적이다. 그래서 주관적 감상이 섞인 기행문에 그럴 듯한 불거리를 섞는 대신 방대한 자료에 기댄 객관적 문명보고서로 쓰려 했다.

“유럽이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까닭은 지금의 제도와 국가형태가 서유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탄생시킨 서유럽을 알지 않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권삼윤씨(48, 문명비평가)는 시선을 유럽에 두고 머리 속으로는 동양을 생각한다. 그리스에서 만난



나신의 조각과 벌거벗은 사람들을 보면서 유럽의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의 ‘반가사유상’을 떠올린다. 인간이 육체를 가졌다는 선명한 사실은 근육 한점 없는 반가사유상이 구현한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정신”과 대비를 이룬다.

“근본적 이해가 없으면 우리 데이터를 검토한 적절한 판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행을 통해 서구사회의 메커니즘을 알면 사회와 제도에 대한 공정한 비판능력도 생깁니다.”

원형, 원류를 이해하고자 그는 서구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로부터 여행을 시작했다. ‘유럽’의 어원이 된 그리스 신화, 길을 통해 세계를 지배한 로마, 진정한 휴식과 평가가 있는 오호리드, 기독교의 추구를 열쇠 모양의 건축물로 보여주는 바티칸, 북유럽 바이킹의 전설이 살아 있는 베르겐·비르겐 지구 등 시간적·공간적으로 전유럽을 아우르려고 노력했다.

“어릴 때부터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꿴습니다.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봐도 즐거리보다 잠깐씩 지나가는 배경과 역사에 관심을 뒀지요.”

무역학을 전공하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여러 단체에서 국제협력업무에 맡아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81년부터 아예 전업으로 나섰다. 유럽을 시작으로 18년 동안 전세계 60여개 국을 여행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 말도록, 돈이 많아서 한 유럽 여행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 번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문화유산 기행을 쓸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답사가 놓친 것을 천착할 겁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철학에 빛을 많이 지게 될 겁니다.”

—이현주 기자

## 천형을 극복한 인간승리 예술

〈천연기념물이 된 바보〉·〈운보 김기창 예술론 연구〉 펴낸 최병식씨



운보 김기창 화백을 지켜본 사람 누구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예술을 향한 불같은 집념이 타자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더욱 그가 걸은 인생역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는 이 시대를 대표할 예술가로 우뚝 섰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자입니다. 천형을 극복한 것 자체가 예술이지요.”

운보의 일대기를 그린 평전 〈천연기념물이 된 바보〉와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연구서 〈운보 김기창 예술론 연구〉(동문선)를 동시에 출간한 최병식 교수(46, 경희대 예술학부)는 그의 예술을 말하기 전에, 삶의 역경을 극복한 과정부터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10여년 가까이 운보의 미학을 연구한 최교수는 소설작법까지 배워 평전을 펴낸 것도 예술을 평하기 전에 그의 인간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운보는 누구보다 현대사의 질곡을 예술로 승화시킨 인물입니다. 인고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는 예술혼을 발산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남긴 것입니다.”

역경을 견뎌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의 깊이 있는 예술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깊이의 정도가 심할수록 관객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바보산수〉와 같은 작품은 운보의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최교수는 운보가 생존해 있을 때 연구서를 펴내기로 했다. 정확한 관련 자료를 남겨 예술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전범을 남기고 싶었던 욕심도 한몫 했다.

“고효는 역경을 이겨낸 대표적인 예술가로 꼽히며 세계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환기·이응노 등은 묘지조차 이국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가를 대하는 단적인 사례 아닐까요.”

운보만큼은 사실에 근거한 기록을 남길 것을 작정한 최교수는 그와 필담을 나누며 각종 관련 자료를 모았다. 덕분에 국내 예술계에서는 드물게 생존 작가의 작가론과 예술론을 담은 저술을 동시에 펴낼 수 있었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많이 수록할 수 있었다. 천형제 김기창이 북한에서 유명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최교수는 앞으로 조각가 문신 등 예술가의 생을 조명하는 글을 쓸 생각이다. 가능하면 운보와 같이 역경을 극복한 예술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글을 발표해 예술·예술가를 소중히 여기는 대사회 교육에도 나설 생각이다.

—오완진 기자

